1.21 승려대회

불교폄훼 규탄 5천 승려 파사현정 기치 드높이다

현대불교 특집
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제 1372 호

결집과 경책

그 옛날, 5백의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,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말씀을 정성껏 합송했다.

말법 시절을 앞둔 오늘, 그 시절 덕분으로 오늘을 사는 오늘의 대중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, 그 말씀이 여법하게 이 세상에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 말씀을 큰 소리로 합송한다. 파사(破邪)에 앞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정(顯正)을 위해 죽비를 드는 것이다. 오늘의 죽비로 소란했던 안과 밖을 잠재우고 1월 21일 오후 2시 파사현정의 그날을 기원한다.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